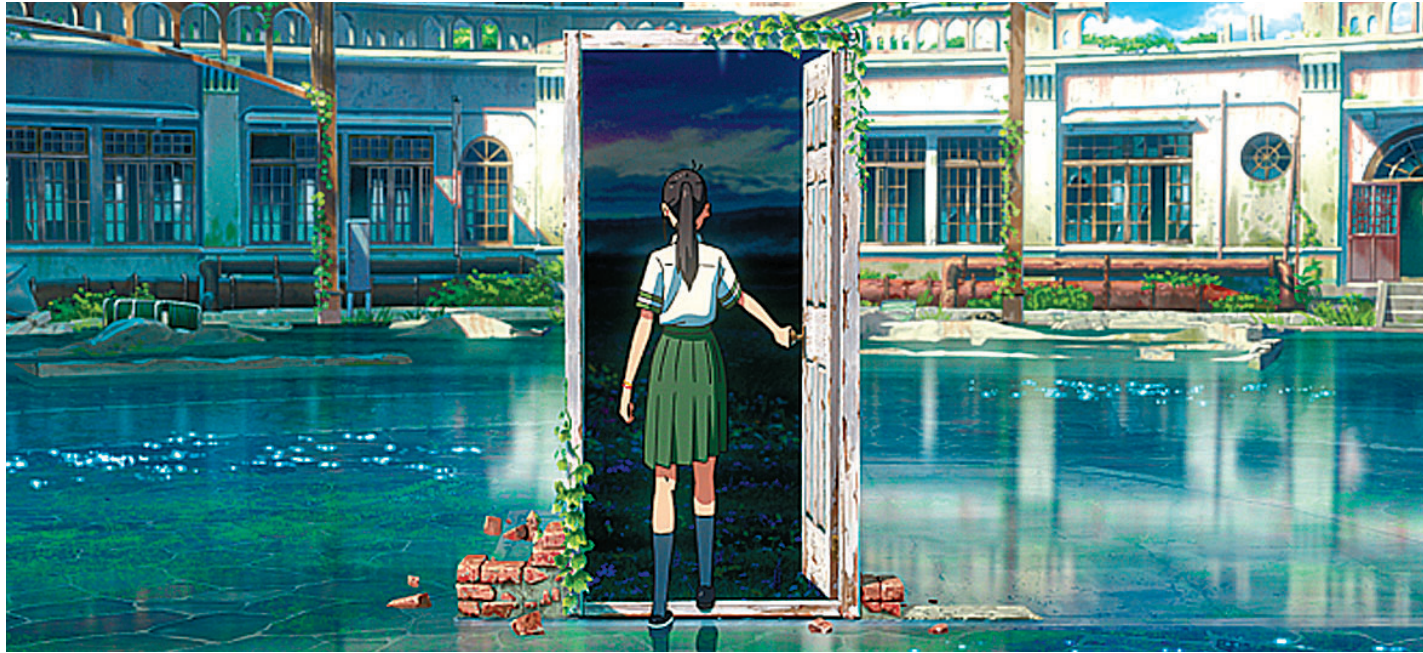


“재난 치유·공감의 메시지”…초고속 100만 돌파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이 관객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다.

올해 개봉한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으며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불러온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을 겪은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이야기로 애니메이션 특정 팬들을 넘어 일반 관객들의 마음도 잔잔하게 울리고 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재난 3부작’ 구원과 회생의 모티브로 감동 그려 8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 유지 관객들 성원에 4D 특별 포맷 상영



“흥행 문단속!”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이 8일 개봉한 후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흥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쇼박스

●극장 넘어 OTT·서점까지

8일 개봉한 영화는 일본 대지진을 소재로 우연히 재난을 부르는 문을 열게 된 여고생 스즈메가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막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너의 이름은’, ‘초속5센티미터’ 등을 연출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이다.

1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118만884명을 모았다. 관객의 성원에 힘입어 22일부터 4D 특별 포맷을 상영키로 했다.

‘스즈메의 문단속’과 함께 신카이 마코

토 감독의 ‘재난 3부작’이라고 불리는 전작인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까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너의 이름은’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극장 통합 랭킹 차트(키노라이츠)에서 13일 미국 아카데미에서 7관왕을 차지한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와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1, 2에 이어 4위에 차지했고 왓차, 티빙 등 OTT에서 많이 본 영화 순위 1~2위를 오가고 있다.

이 같은 인기는 서점으로도 이어져 동명의 소설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옮긴 것으로 마코토 감독이 직접

집필했다.

●재난을 보듬는 영화의 손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상현집결 그리고 도공마을로’ 등 앞서 개봉한 작품들이 몰고 온 일본 애니메이션의 열풍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향한 팬덤의 열성적인 지지가 더해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봉 첫 주부터 관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포스터, 오리지널 티켓 등 MD상품이 일찌감치 동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재난을 겪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관객들에게도 치유의 메시지와 감동을 전했다는 평가가 각종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 속에 영화가 시의적절했다는 시선이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배경은 일본이지만, 지진이라는 글로벌 이슈와 재난에 대한 현대인의 불안감을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며 “또 구원과 회생의 모티브로 감동적으로 그려졌고, 대중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몰입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농구부터 배구·축구까지…‘스포츠 영화’ 개봉 릴레이

장항준·김은희 협업 ‘리바운드’ 주목 ‘드림’ 2010 홈리스 월드컵 실화 각색 송강호 ‘1승’, 한국 첫 배구영화 눈길

극장가에 스포츠 영화가 대거 찾아온다. 이른바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열풍이 또 한 번 불어 닥칠 조짐이다.

‘슬램덩크’의 인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구를 소재로 내세운 ‘리바운드’가 다음 달 5일 개봉한다.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김은희 작가가 각본을 집필한 영화는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 출전한 부산중학교 농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특히 장항준·김은희 ‘스타 부부’인 두 사람이 2011년 SBS 드라마 ‘싸인’ 이후 12년 만에 내놓는 협업작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안재홍이 농구부 코치 역을 맡고, 정진운, 이신영, 김백, 정건주 등 출연한다.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극한직업’



봄바람과 함께 스포츠 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각각 농구와 배구를 소재로 한 안재홍 주연의 ‘리바운드’(왼쪽)와 송강호 주연의 ‘1승’.



사진제공 | (주)바른손이엔터테인먼트 난다난다

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은 생전 처음 공을 잡아본 축구팀의 홈리스 월드컵 도전기를 담는다. 박서준과 아이유가 주연해 한국이 처음 출전했던 2010년 홈리스 월드컵 당시 실화를 각색한 작품에 그

린다. 다음 달 26일 개봉한다.

한국영화로는 처음 배구를 소재 삼은 ‘1승’과 마라톤 영화 ‘1947 보스턴’도 최고의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들을 내세워 극장 성수기를 노려 개봉할 예정이다.

‘1승’은 단 한번의 승리를 노리는 여자 배구단에 대한 이야기다. 송강호가 어린이 배구 교실을 운영하다가 해체 직전의 여자 배구단을 맡게 된 감독으로 나서며 최고의 배구스타 김연경이 특별출연한다. 1일 열린 제52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 초청 상영돼 일찌감치 호평을 받았다.

1947년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실화를 그린 ‘1947 보스턴’에서는 하정우가 당시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이끌었던 전설적 마라톤 코치정을, 임시완이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서운복 선수를 연기한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16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승리하거나 성장을 이뤄내는 플롯의 스포츠영화는 ‘인간승리’라는 서사가 바탕으로 돼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 한다”라며 “역동적인 경기 장면이 주는 시각적 쾌감과 오락적 재미까지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 적발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 사건 수사를 위해 13일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의원을 압수 수색하던 중 의사 신 모 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주거지와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매니저 등 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아인을 다음주께 소환해 조사할 계획 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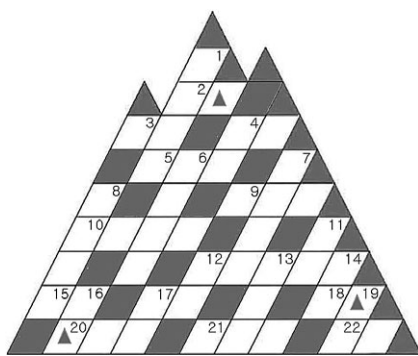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3		7				2	
9			2		3			7
		2			6	5		
	8	7		5			9	4
			4		9			
3	4			6		2	7	
		3	5			6		
1			6	8				2
	6			7		5		

■ 스도쿠정답

	5			2				3
1				4		8		7
	2		1		9			
		7		6		2		
2	3		8		1		9	5
		1		9		3		
			6		8		4	
6		2		5				3
	9			3			6	

■ 낱말문제



■가로열쇠 02.비가 올 때 머리에 받쳐 비를 가리는 물건. 03.울고 그물을 가리지 않고 덮여놓고 믿음. 04.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급작스러움. 05.이르든지 늦든지 간에 09.사업이 장래 크게 발전될 것이 기대되는 기업의 주. 10.질서가 정연하여

조금도 흐트러진 데나 어지러운 데가 없음. 12.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 15.머리털을 깎아 다듬음. 17.조직이나 기능 등이 무너져 흩어짐. 18.남에게 모욕을 받음. 20.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일. 21.병균이 옮는 것을 막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옷 위에 겹쳐 입는 흰색의 옷. 22.이리저리 정저 없이 헤매며 다님.

■세로열쇠 01.하늘과 신령의 도움. 04.신문·잡지 등 정기 간행물을 처음으로 간행함. 06.오랜 세월을 두고 변하지 아니함. 07.이미 벌인 참이탄 뜻. 08.오직 하나뿐으로 둘도 없음. 11.오늘의 바로 다음날. 12.다름됨을 그치고 풀. 13.오래 살고 죽지 아니한

다는 열 가지. 14.비가 많이 와서 강에 크게 불어난 물. 16.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모진 소리나 짓을 함. 17.사실과 다르게 전함. 19.다른 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거나 옮겨 놓음.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산 이름이 됩니다.

